



일본 금융회사,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 유럽 국채 경쟁적 매각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은행 니시무라 부총재는 30일 교토에서 경제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럽 국가부채 문제가 전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이 일본 경제 회복에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밝힘.
 - 그는 국가부채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치료제가 없어 경제를 위기상황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함.
 - 일본 경제는 현재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엔화 가치가 사상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음.
- 일본에서 유로존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금융회사들이 유럽 국채를 대량 매각하고 있음.
 - 일본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국제투신투자자문은 미국과 유럽의 각국 국채로 구성된 글로벌 소버린 오픈 펀드에 편입된 이탈리아와 스페인, 벨기에 국채를 모두 매각함.
 - 그동안 이 펀드는 2조 엔의 자산 총액 가운데 4% 정도를 이탈리아, 스페인, 벨기에 국채에 투자해 왔으나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지난 1년간 약 8%가량 손실을 입음.
 - 일본 대형 8개 생명보험회사들도 추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근 1개월간 보유 중인 이탈리아, 스페인 등 유럽 5개국 국채 44%를 매각함.
- 한편, 유럽 재정불안이 증폭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은 일본의 국채 가격도 하락하고 있음.
 - 일본의 한 매체에 따르면 25일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가 1.030%로 전날에 비해 0.035%p 상승하여 1개월 만에 최고수준이 되었으며, 만기 20년짜리 국채 금리도 1.795%를 기록하여 2개월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됨.

(요미우리신문, 아사히신문, 니혼게이자이 11/30, 요미우리 11/29, NHK 11/28, 뉴스종합)